

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2018년 봄 · 61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청자 상감 동자 모란 넝쿨 무늬 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18년 봄 ■ 61호 Contents

기획/동자	나랑 같이 놀자 동자 연가 일하는 아이들	4 8 12
문화칼럼	중국의 천부지국, 청두	16
회원마당	커다란 집을 가지고 있는 탐 태를 묻고, 평안을 빌다	20 22
전시실 산책	인물로 읽는 러시아 역사	25
박물관 탐방	남도의 타임캡슐 - 국립광주박물관	28
박물관회 소식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 고려시대 불감을 기증하다	31
숨은 전시	주령주령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4

발행일 2018년 3월 6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발행·기획 신병찬 편집회원 강현자·계윤애·길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서승연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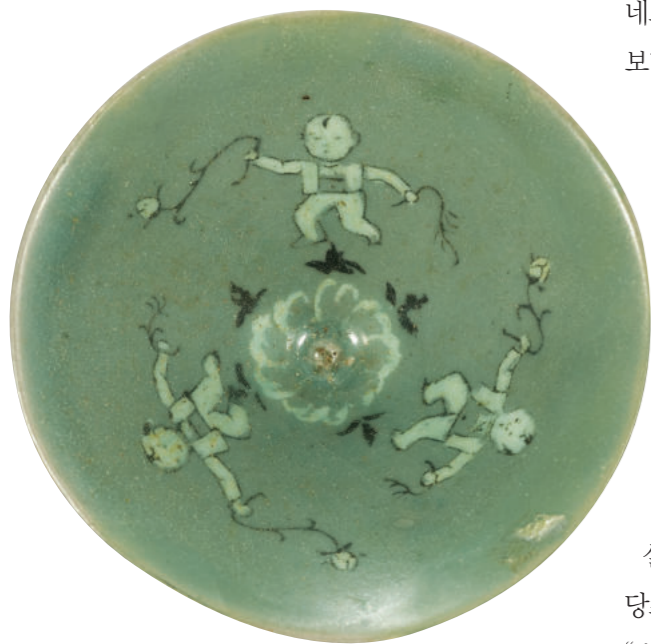
나랑 같이 놀자

“이 청자 원의 동자문은 웃는 얼굴도 아닌데 생기가 넘치네요.”
 “조형미술에서 문양은 뜻을 전하는 글과 같아요. 여기 있는 자기들은 양각이거나 문양을 파고 백토와 자토를 집어넣는 상감을 이용해 무늬를 표현했어요.”
 “동자문은 그럼 무얼 상징하나요? 연꽃이나 포도 덩굴과 함께 있는 동자문도 있어요.”
 “동자문은 비색청자 전성기에 등장하는데 신성함과 풍요, 생산을 상징해요. 포도당초문과 어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포도 덩굴도 장수, 다남자, 다복, 다부를 표현하는 문양이에요. 여러 갈래로 휘감긴 포도 덩굴을 타고 노는 동자는 동화 속 장면을 연상시키죠. 한때 중국에서 유행하던 <백동자도>에서 착안했다고 하지만 저 표정은 익숙한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에요. 명나라 식물 백과사전 『군방보群芳譜』에서 ‘모든 식물들은 꽃을 피운 뒤 열매를 맺으나 오직 연꽃만은 꽃과 열매가 나란히 함께 생겨난다.’라고 적고 있어요. 연꽃은 ‘연이어 자손을 얻는다.’는 연생連生의 의미를 포함해요.”
 “더러운 흙에서 자라지만 물들지 않는 순결함이 동자들과도 어울리네요. 맑은 얼굴로 우리 애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자들을 보니 이중섭 화가 그림 속 아이들이 떠오르는 걸요?”

“이중섭 화가가 힘찬 선의 울림으로 황소의 영혼을 담았다는 건 모두 알지요. 더불어 오산학교 임용련 선생과 고유섭 선생의 영향으로 청자와 분청사기에 일찍부터 눈을 떴고, 자신의 그림에 청자 속 동자와 분위기를 변화 활용했다 볼 수 있어요.”
 “사기장의 깊은 숙내가 화가의 아름다운 시선으로 옮겨졌군요. 다들 즐거운데 홀로 쓸쓸해 보이는 저 동자의 표정이 인상적이에요.”

불 꺼진 고요한 청자 전시실, 찻잔 안쪽에서 빙글빙글 돌며 속 살대던 세 명의 아이가 고개를 숙 내민다. 찻잔에 새겨진 국화문과 당초문 너머 아이들이 들고 있는 꽃과 풀도 새새거린다.

“으라차차,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사람들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느라 몸을 움찔거릴 뻔했네.”



청자 상감 동자 모란 냉쿨 무늬 원, 국립중앙박물관

“맞아. 우리 모양새가 좋아서 차를 담아 마시면 힘이 솟을 것 같다고 할 땐 나도 몰래 웃을 뻔했지. 그 사람들도 고려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를 내려다보며 마시는 차 한 잔의 소소한 즐거움을 아는 것 같더라.”
 “애들아, 우리랑 닮은 친구들도 있다니 찻잔 밖으로 나가 볼까?”
 세 명의 아이들은 쿵닥쿵닥 뛰어 찻잔 밖으로 나선다.
 “여기 우리랑 비슷한 곳에 사는 친구들이 있네.”
 입 가장자리 여섯 곳에 살짝 흠을 낸 자리가 꽃 모양처럼 보이는 은은한 찻그릇이다. 안쪽을 내려다보니 잔잔한 파도 속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모래언덕이 있다. 연꽃과 물풀이 한가로운 물가에 물새가 날고 여섯 명의 아이들은 무언가 깊이 열중한 듯 골똘해 보인다. 신기한 풍경에 세 아이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안녕, 너희들이 노는 곳은 참 좋구나!”
 “거기서 뭐 해? 우린 바빠! 연꽃이랑 물새랑 연못을 멋지게 만드는 중이야.”
 “멋지니까 우리가 놀러 왔지. 다른 아이들은 무얼 하나 궁금한데 같이 놀러 가지 않을래? 포도 덩굴을 타고 노는 아이들도 있대.”
 “좋아! 우린 연못 만들기가 끝나면 갈게. 먼저 가.”
 어디선가 왁자지껄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호리호리한 조롱박 모양의 주전자가 굽이 높고 벌어진 받침과 함께 있다. 주전자에 포도 덩굴이 주렁주렁, 매달려 노는 씩씩한 아이들의 얼굴이 기운차다.
 “안녕, 너희가 포도 덩굴 동자들이구나. 우리처럼 백 상감·흑 상감 옷을 입었네. 반가워!”
 “너희들은 당초문 원에서 빙글빙글 춤추는 아이들이구나. 덩굴에선 너희가 노는 게 보이지.”
 “이 포도는 탐스럽고 색깔도 아름답다.”
 “그건 구리 성분의 안료를 사용한 거야. 우릴 구워준 사기장 아버지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서 높은 온도에서 증발해버리는 까다로운 구리로 선풍색 무늬를 만들어내셨어. 동화 기법이라 하는데 멋지지! 우리는 전라북도 부안군 유천리 가마에서 태어났어.”
 퐁퐁한 표정만큼이나 소개도 푹 부러진다.
 “남쪽에서 왔구나. 우린 개성 부근에서 왔어.”



청자 상감 동화 포도 동자 무늬 조롱박 모양 주전자,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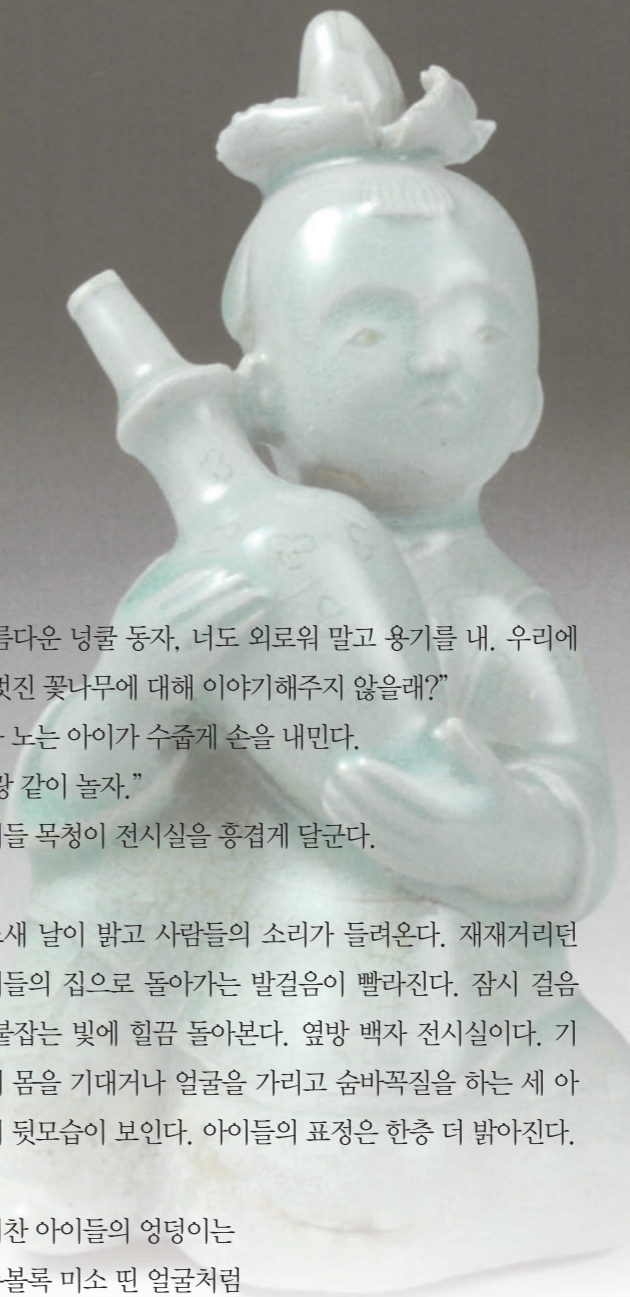
청자 상감 동자 넝쿨 무늬 주전자. 국립중앙박물관

연못 동자들이 어느 틈엔가 옆에 와서 인사를 한다.
 “우리 옆집 큰 나무 넝쿨에 혼자 노는 아이도 개성에서 왔다고 했는데, 늘 시무룩해.”
 풍만한 넝쿨무늬 주전자가 보인다. 몸체 양면에는 백색의 두터운 무늬인 백퇴화白堆花 원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커다란 꽃나무가 살고 있다. 꽃나무 가운데에 엄마 치마폭에 매달리듯이, 나무를 꼭 잡고 서서 아이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아이가 있다.
 “너구나. 혼자 노는 아이가.”
 “무슨 일이야? 뭐가 맘에 안 들어? 혼자 있지 말고 같이 놀자.”
 “난 언제나 혼자야. 같이 노는 게 뭔지, 왜 그래야 하는지 몰라. 난 태어날 때부터 내내 혼자만 있었거든.”

시선을 피하면서 다시 시무룩해진다.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일본 미술관에 제 몸통만 한 정병을 든 여자아이가 있대. 작은 몸에 물 담은 정병까지 무거운 텐데, 홀로 백옥처럼 푸르고 수정처럼 영롱한 청자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어 아주 인기가 많대.”
 “아, 동자 모양 연적이라면 나도 알지. 고려시대 이규보란 문인이 그 아이에 관한 시도 썼어. 유용한 쓰임새와 아름다운 모습을 애뜻하게 칭찬하는 내용이 정감 넘치지.
 ‘어느 한 청의동자(玄麼一靑童)
 고운 살결 백옥 같구나(緻玉作肌理)
 허리 굽히는 모습 공손하고(曲膝貌甚恭)
 얼굴과 눈매도 맑고 수려하구나(分明眉目鼻)’
 이렇게 시작하는 시야.”



청자 연못 동자 무늬 꽃 모양 완. 국립중앙박물관



“아름다운 넝쿨 동자, 너도 외로워 말고 용기를 내. 우리에게 멋진 꽃나무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을까?”
 혼자 노는 아이가 수줍게 손을 내민다.
 “나랑 같이 놀자.”
 아이들 목청이 전시실을 흥겹게 달군다.

어느새 날이 밝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재재거리던 아이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빨라진다. 잠시 걸음을 붙잡는 빛에 힐끔 돌아본다. 옆방 백자 전시실이다. 기둥에 몸을 기대거나 얼굴을 가리고 숨바꼭질을 하는 세 아이의 뒷모습이 보인다. 아이들의 표정은 한층 더 밝아진다.

활기찬 아이들의 엉덩이는
 불록불록 미소 띤 얼굴처럼
 팔딱팔딱 깨어나 숨 쉬고
 순백색으로 샅쭉거리며 인사한다. 🐼

정은정 회원



청백자 세 동자상. 국립중앙박물관

동자 연가 童子戀歌



수월관음도 부분, 일본 長樂寺

길손이에요. 동화 『오세암』의 주인공입니다. 작가는 폭설로 고립된 사찰에서 홀로 겨울을 보낸 오세동자 설화를 토대로 제 이야기를 지으셨지요. 저는 누이가 보고 싶고 바람 소리가 사나워질 때마다 스님의 당부대로 했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얼마나 관세음보살을 소리 내어 찾았을까요. 어느새 그리움과 두려움, 배고픔까지도 사그라졌어요. 눈이 녹아 길이 트이자마자 찾아온 사람들은 제가 머문 암자에서 맑은 독경 소리를 듣고 향기를 맡았다고 해요. 백담사의 관음암觀音庵을 중건한 후에 오세암五歲庵이라 부르며 그때 다섯 살이었던 저의 성불을 기리고 있지요.

고요와 암흑만이 가득한 날들 동안 엄마의 품 같은 온기를 담아 저를 안아 주고 토닥거려준 손길은 관세음보살의 가피加被(부처나 보살이 중생에게 힘을 주는 일)였어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가웃거리는 분도 계시네요.

저보다 더 유명한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관세음보살과 함께

제 친구는 멀고 먼 남인도 해안가까지 구도의 길을 떠나요. 험준한 보타락가산의 높은 바위 위에 반가부좌한 채로 선정에 든 보살을 만나기 위해서지요. 보살은 관음의 서른셋 변화신 가운데 한 분으로 ‘물속의 달’, 수월水月이에요. 하늘의 달이 일시에 천개의 강에 나타나듯 보살의 청정한 법신이 온 세상에 그득하고 자비가 온 세상을 고루 비춤을 뜻해요.

친구는 누구든지 부르지만 하면 어디서든 나타나는 친근한 존재, 관세음보살을 또렷이 목도하였답니다. 선재善財란 이름은 어머니의 몸속에 머물 때부터 집안 가득 온갖 보물이 가득해서라고 하지요.

극적인 만남의 기록화인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에는 정병만큼 자그마한 친구가 일렁이는 물결의 끝자락에 자리해서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워요. 아미타불이 새겨진 보관을 높이 쓴 수월관음은 어깨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 섬세한 색색의 문양과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옷 위로 투명하게 속이 비치는 비단을 둘렀어요. 다소곳한 자세로 보살을 우러르는 친구의 얼굴을 보세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지만 거대한 수월관음에 의구심이나 위협감을 느낀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저도 암자에 머물렀던 관음보살과 생김새와 옷차림은 다르지만, 자비로움과 부드러움은 같다고 느껴요.



수월관음도, 일본 長樂寺

선재동자는 선지식善知識(수행자들의 스승) 중 28번째로 수월관음을 친견한 후에도 계속해서 천하를 역방歷訪하다 마지막 53번째로 보현보살을 만나요. 그 공덕으로 아미타불 국토에서 왕생하고 '구도의 아이콘'으로 존중받지요. 선재동자의 구법행각은 산수를 찾아 유행遊行하며 심신을

연마한 화랑의 수련이나 중국에서 귀국하여 낙산사를 창건한 화엄종의 개조開祖, 의상義湘의 역정에 영향을 끼쳤대요. 어른에게도 벽찬 막중한 임무였기에 친구의 위업을 생각할 때마다 어깨를 으쓱거리게 돼요.

그런데 선재동자 같은 어린아이가 언제부터 승단에 들어왔을까요. 알아보니 불교의 시원에 닿아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네요. 붓다의 아들 라훌라가 출가한 이후 부모가 동의하면 네 살에서 여덟 살 아이들도 스님들과 생활하고 수행했다지요. 범어로 구마라 또는 구마라카라, 한자로는 동진童眞이라 해요.

지장보살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 예불시간이면 줄음에 겨워 오뎅이처럼 흔들거리는 개구쟁이 동자승이 기억나시지요.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해서 천진불天真佛과 닮이 없었지만 실제 동자승이 아닌 단기출가 체험 중인 신도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면 동자의 조형물인 동자상이라도 찾아볼까요. 숨바꼭질하듯 전각을 열어가다 의외의 장소에서 동자상을 보게 되네요. 명부전, 죽은 이의 닛이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곳이니 어린아이가 머물 곳은 아니다 싶은데, 어떤 연유일까요.

조선시대 불교가 중국의 도교와 습합하는 과정에서 본존인 여래如來를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는 협시 형태가 불교 존상의 시동侍童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명부전 안에 적게는 2구, 많게는 12구의 동자상이 배치되어 있네요.

명부전의 주존은 천상에서 지옥까지 이르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성불을 미룬 대자비의 보살, 지장보살이에요. 원래 사십구재 의식과 밀접한 시왕이 자리했는데 임진왜란 후부터 지장보살이 모셔졌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 이후 민초의 삶을 생각해보면 지장보살이

직접 명부전을 찾아 들어왔으리라 싶기도 해요. 스러져간 무수한 목숨들과 고난 가득한 당시 상황에 저러오는 마음을 안고 분연히 일어났을 모습이 그려져요.

그러면 명부전에 들어온 동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그들이 공손히 들거나 안고 있는 지물들에 눈이 가요. 붓·벼루·두루마리의 필기구, 연꽃이나 연잎, 온갖 과일, 학·봉황·호랑이·기러기 등 참 많지요. 짐작에 공부를 하다가 동물과 뛰어놀고 공양도 하려니 싶어져요. 속마음을 읽었는지 얄은 미소를 띤 동자가 말을 건네요. 사람들의 살아생전 행적을 기록하고 보관했다가 시왕에게 보고하거나 판결을 기록하느라 바쁘대요.

'선을 증명하는 동자는 매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귀를 기울여 선을 닦음을 들으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기록하지 않음이 없으며, 악을 증명하는 동자는 음향이 소리에 따라 일어나듯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 조그마한 악이라도 기록하지 않음이 없다.' 동자의 소임이 지장보살에 대한 경전에 자세히 적혀 있었네요.

역사의 편찬을 위해 초고草稿를 쓰는 사관史官의 모습과 겹쳐져요. 선악동자들이 지녀야 할 엄정함과 삭여야 할 고단함이 커다랗게 다가와요.

동자를 노래하다

불교의 세계에서 동자는 구법자, 공양자 그리고 시동 일까지 맡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현세적인 관음신앙과 내세적인 명부신앙의 특세가 달라졌듯 동자 역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역할이 바뀌고 표현의 차이가 생겨났네요.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일에 물 안 들고 청정범해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동자의 순수한 심성을 노래하는 발원문發願文으로 이야기를 마치려 해요.

아참, 궁금한 것이 있어요. 누이는 어른이 되면 동심을 잃는다고 했어요. 영원히 다섯 살이어서 다행이다 했는데 '늙으면 아이 된다.'는 말도 있네요. 그럼 나이를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닌 건가요. 🍌

문정원 회원



목제 동자상, 옥랑문화재단



목제 동자상, 국립중앙박물관



목제 동자상, 호림미술관



목제 동자상, 국립중앙박물관



신잠, 탐매도, 국립중앙박물관

일하는 아이들 侍童

우리 옛그림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대개 시동侍童(귀인 밑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의 모습이다. 수려한 풍경의 산속 작은 집 마당을 거니는 귀인(신선이나 선비)이 있고, 마당 한 귀퉁이에는 화로에 불을 피워 차를 끓이는 아이가 있다. 이렇게 차를 끓이는 아이를 특별히 다동茶童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인문이 일흔여섯 살에 그린 <누각아집도>에는 시동이 다섯 명이나 나온다. 시회詩會를 위한 종이 두루마리를 들고 오는 아이, 마당에서 차를 끓이는 아이, 먹을거리를 들고 오는 아이, 선비들 곁에서 서서 기다리는 아이, 멀리서 새로운 손님 두 명의 뒤를 따라오는 역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아이 등이다.

당나귀나 소를 타고 가는 주인 곁에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심사정의 <설중탐매도>에 이런 아이가 나온다. 눈 쌓인 산속으로 매화를 찾아 떠나는 '설중탐매도'는 조선시대 화가들이 즐겨 그렸던 소재인데, 중국 당나라의 시인 맹호연의 고사에서 유래했다. 맹호연은 평생 은둔생활을 하며 술과 가야금을 벗 삼았던 인물인데,

이른 봄이면 매화를 찾아 당나귀를 타고 파교라는 다리를 건너 눈 덮인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 그림에는 당나귀를 타고 파교를 막 건너려는 선비와 그 뒤를 따르는 시동이 있다. 선비는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둘렀으며 포근해 보이는 갈개를 깔았다. 그리고도 추웠는지 몸 전체를 덮는 천을 두르고 있다. 뒤를 따르는 시동은 두건을 쓰고 목도리를 둘렀지만, 바지는 훌바지에 행전을 동여맸다. 장대를 어깨에 짊어졌는데, 앞에는 누런 보따리, 뒤에는 붉은 보따리에 거문고까지 매달았다. 이제 곧 건널 다리를 바라보는 선비의 표정은 근엄하고, 뒤에서 선비를 쳐다보는 아이의 표정은 '이제 거의 다 왔구나!' 하는 안도감을 담고 있는 듯하다.

이 그림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탐매도>가 있다. 신숙주의 증손자인 사대부 화가 신잠의 그림인데, 선비는 비쩍 마른 당나귀를 탔지만 그래도 모자를 챙겨 쓰고, 목도리를 둘렀으며 가족신도 신었다. 이제 다리에 막 들어선 선비는 뒤를 돌아보며 시동을



김홍도, 군현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이인문, 설중방우도, 국립중앙박물관



김득신, 농촌풍일, 개인소장

재촉한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시동은 흠바지저고리에 발목이 흰히 드러난 폭넓은 바지를 입고, 머리에도 끈 하나만 둘렀다. 심지어 맨발이다. 허리춤엔 술이 들어 있을 호리병을 차고, 땅바닥을 보며 걷고 있다. '매화고 뭐고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 쌀쭉한 표정이다.

눈이 오면 웬지 싱숭생숭해지면서 친구가 생각나는 건 현대인들만이 아니었나 보다.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왕 휘지와 대규의 우정을 보여주는 '설중방우雪中訪友'(눈 속에 벗을 찾아간다)라는 고사에서 비롯된 소재 역시 그림으로 즐겨 표현되었다. 이인문과 조영석의 <설중방우>가 유명한데 그중 이인문의 그림을 살펴보자.

눈은 잠시 그쳤지만 여전히 추운 날이다. 지붕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마당 가장자리에도 치워둔 눈이 수북하다. 이런 산골짜기 오두막에 반가운 친구가 연락도 없이 눈길을 뚫고 찾아왔다. 어찌 반갑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방안에 마주앉은 두 친구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그런데 대문 밖에는 아직 선비를 태운 소를 끌고 눈길을 걸어온 아이가 있다. 주인집 시동은 이런 아이를 문을 활짝 열고 오른팔을 뻗어 반갑게 맞아들인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다.

이렇게 갖가지 심부름을 하는 시동뿐 아니라 집안의 농사일을 돕거나 가축을 돌보는 아이들의 모습도 있다. 김득신의 그림 <농촌풍일農村豐日>에는 들밥 내가는 어머니 뒤를 술동이를 들고 따라가는 아이가 있다. 『시경』 <빈풍편>에 나오는 엽피남무饑彼南畝라는 구절을 표현한 그림으로 '저 남쪽 밭 비탈로 밥을 날라간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 주제는 조선 후기 규장각 차비대령화원을 뽑는 시험의 문제로도 가장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특히 화원화가들이 열심히 연습했던 주제였다

화원이었던 김득신 역시 이 그림을 여러 번 그렸을 것이다. 멀리 눈에서는 김매기를 하는 듯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다섯 사람이 보이고, 소는 둔덕에 편히 앉아 되새김질을 하나 보다. 어머니는 머리에 밥을 가득 담은 광주리를 이고 지팡이를 짚었다. 아이는 친구들과 놀다 어머니에게 불러 나왔는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시무룩하게 술동이를 안고 있다. 뒤를 따르는 검둥개는 신나서 꼬리를 흔들며 따라간다.

김시가 그린 <동자견려도>는 가축을 돌보는 아이를 보여주는 유쾌한 그림이다. 당대의 권력자였던 아버지 김안로가 막내아들이었던 자신의 결혼식 날 역적으로 의금부에 체포당해 사약을 받고 죽은 뒤 평생을 불우하게 지냈던 이력을 생각해 보면 김시에게는 그림이 크나큰 위로가 되었나 보다.

작은 개울에 놓인 통나무 다리를 사이에 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동자와 물이 무서운지 한사코 발걸음을 떼지 않으려는 당나귀 사이의 힘겨루기가 펼쳐진다. 팽팽하게 당겨진 고삐는 둘이 얼마나 있는 힘껏 당기고 버티는지를 보여준다.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난처한 얼굴이다. 당나귀와 아이는 엄청 심각한 상황이겠지만, 둘의 힘겨루기를 보고 있으면 슬그머니 웃음이 빠져나오며, 화가가 참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김문숙 회원



심사정, 설중탐매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김시, 동자견려도 부분, 호암미술관

중국의 천부지국天府之國, 청두成都

역사문화도시 청두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도시의 본질이 시간적 토대 위에 있음을 보여 주는, 도시의 역사성에 대한 지적이다. 도시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파악하는 작업은 결국 인간의 삶과 문화의 역사성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도시들이 건설되어 왔다. 왕과 제후를 위한 도시, 정치 세력의 교체와 갈등이 투영된 도시, 경제적 생산과 교역 거점에 형성된 도시, 군사적 전략 요충지에 건설된 다양한 역사도시들이 그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1982년부터 중국 국무원은 도시에 분포하는 유적과 유물, 혹은 역사건축물이 특별히 풍부하거나, 도시의 전통적 배치 형태나 역사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도시들을 국가역사문화도시로 지정, 공포하고 있다. 1986년과 1994년 2, 3차에 걸친 대규모의 지정, 공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모두 134곳의 도시들이 국가역사문화도시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보호, 보존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국가역사문화도시는 7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통일왕조의 수도로 사용되었던 고도형古都型을 비롯하여 전통경관형, 일반 사적형, 명승형, 지역 특색형, 근대 사적형, 특수 직능형으로 구분된다.

청두는 1982년 국가역사문화도시로 지정, 공포되었다. 청두는 중국 서부 지역에 위치하는 지역 거점도시로 쓰촨분지四川盆地的 청두평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까지 중국정부의 국가전략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의 중점도시이기도 하다. 기후가 온화하고 물산이 풍부하여 고대로부터 ‘천부지국天府之國’으로 별칭되어 왔다.



두보초당

청두지역에 본격적으로 도시가 건설된 것은 B.C 4세기 무렵 전국시대 진秦이 촉군蜀郡이라는 군현을 설치하면서 청두를 그 치소治所로 삼은 것을 연원으로 한다. 특히, 기원전 250년을 전후하여 청두평원 교외에 치수를 위한 도강언都江堰이라는 대규모 고대수리시설이 건설되면서 청두는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차茶, 마麻, 칠漆, 약재, 피혁 등의 집산지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대규모의 인구유입으로 도시의 규모는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진령秦嶺과 대파산大巴山으로 인해 중원지역과 격리되어, 이후 봉건왕조의 교체와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도 독자적으로 안정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배경에 대해 이백李白은 그의 작품 『촉도난蜀道難』에서 “금관성이 즐거운 곳이라 하나, 빨리 집에 돌아가야 하리. 촉도를 가기 어려움이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어렵나니, 몸을 돌려 서쪽을 바라보며 탄식하노라.”라고 노래하고 있다.

한대에 들어서서 청두지역은 익주益州로 개칭되었으며 동한東漢시기에는 장안, 낙양, 임치, 한단, 완완과 더불어 전국 6대 도시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였다. 이러한 배경이 동한 멸망 이후 유비가 청두를 수도로 촉한蜀漢을 건국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대唐代에는 안녹산의 난을 계기로 장안, 양주, 돈황과 더불어 전국의 4대 도시로 번성하였다. 당시 청두의 대규모 방직업 발전과 문화적 번영은 ‘양주는 천하의 제일이고, 익주는 두 번째楊一益二’라는 기록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금성錦城’이라는 별칭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출현하였다. 청두는 이러한 경제적 기반에 기초하여 지역성이 농후하면서도 차별화된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생산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후사武侯祠, 두보초당杜甫草堂, 청양궁靑羊宮, 문수원文殊院 등의 역사유적과 이백, 두보, 설도薛濤, 육유陸游 등의 역사인물을 비롯하여 사천요리,



도강언

차관茶館, 변검變臉, 화회花會, 촉금蜀錦, 칠기漆器 등의 다양하고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왔다.

도강언의 인문정신

도강언은 전국시대(B.C 256년) 진의 촉군태수蜀郡太守 이빙李冰 부자에 의해 설계되고 지역주민에 의해 건설된 대규모 수리관개시설이다. 도강언은 민강의 물줄기를 주류인 외강外江과 지류인 내강內江으로 나누기 위하여 민강 중심부에 건설한 긴 제방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는 내강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과 수압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강의 일부 물줄기는 다시 좁은 병입구 모양의 통로를 통과해서 청두평원의 농업용수로 관개되어 사용된다. 도강언의 수리시설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현대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사가文化史家 위치우위余秋雨는 답사기에서 “중국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역사건축물은 만리장성이 아니라 도강언이다.”라고 단언한 적이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만리장성은 그것을 마주하는 이들로 하여금 이민족에 대한 거대한 분노와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하지만 도강언은 인민들에게 천년의



영화 <호우시절>

복락福樂을 제공하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만리장성이 드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도강언은 현재까지도 그 아득한 시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역사와 인간을 바라보는 그의 혜안과 인문에 기초한 새로운 역사인식이 무척이나 감동적이다.

두보초당杜甫草堂과 시인의 도시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 봄이 되니 내리네,
바람 따라 물래 밤에 들어와, 소리 없이 촉촉히 만물을 적시네,
들길은 구름이 낮게 깔려 어둡고, 강 위에 뜬 배만 불빛 비치네,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니, 금관성에 꽃들이 활짝 피었네.

이 시는 당나라 시인 두보가 안녹산의 난을 피해 청두에 초당을 짓고 머무를 때 지었다는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 春夜喜雨’이다. 최근에는 두보의 시와 초당을 배경으로 영화 <호우시절>이 제작되어 다시 주목받기도 하였다.

두보초당은 이백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추앙 받는 두보가 전란을 피해 한동안 거주했던 곳이다. 이후 두보초당은 사당祠堂으로 조성되었으며 두보가 공부원외랑工部員外郎이라는 벼슬을 지낸 적이 있어서 공부사工部祠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두보는 시성詩聖이라는 후대의 명성이 무색하게 당대에는 빈곤에 시달리는 고달픈 나날을 보냈다. 두보는 48세가 되던 759년에

안녹산의 난을 피해 가족을 이끌고 청두로 와서 생애 처음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보냈다고 한다. 두보는 이곳에서 4년간 머물렀으며 모두 240편의 시를 지었다.

청두는 시인의 도시이기도 하다. 당대 안녹산의 난과 송대 금나라와 항쟁하던 시기에는 전란을 피할 수 있었던 이곳에서 두보와 육유陸游를 비롯한 많은 시인들이 활동하였으며, 그들의 시는 대부분 삶의 비애와 자연에 대한 서정을 노래하고 있다. 근대에는 항일전쟁 기간 다수의 지식인 그룹이 이곳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역설적으로 문화적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청두의 독특한 인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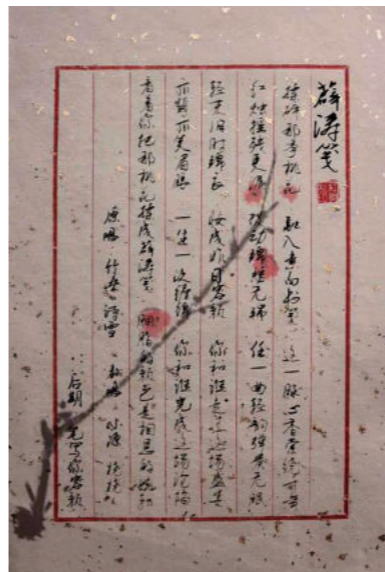
망강루望江樓와 설도전薛濤箋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하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하고.

당대의 대표적인 여류시인 설도薛濤의 시 ‘춘망사春望詞’를 김억金億 선생이 번역하여 ‘동심초同心草’라는 제목의 가곡으로 잘 알려진 노래이다. 시는 ‘풀을 엮는다.’는 표현으로 연인과 이어지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청두의 차관



설도전

당대의 여류시인 설도는 원래 장안 사람이었으나 어려서 하급 관리였던 아버지를 따라 청두로 이주하여 생활하였다. 그녀는 어려서 이미 시를 지을 정도로 총명하였지만, 부친이 사망하고 가세도 기울어 결국 예기藝妓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 위고韋皇라는 지방 관리가 그녀의 재능에 주목하여 자주 설도를 주식酒席에 불러 시를 짓게 하고 ‘여교서女校書’라 칭했다. 후세에 기녀를 ‘교서校書’라 칭하게 된 것은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녀는 당대의 대표적인 문인 원진元稹·백거이白居易·유우석劉禹錫 등과 시를 화답할 정도로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많이 남겼다. 만년에는 두보초당이 있는 만리교 근방에 은거하였는데, 마침 이곳이 양질의 종이 생산되는 곳이어서 설도는 작은 크기의 심홍색 종이를 만들게 하여 사천지역의 주요 명사들과 시를 교류하였다고 한다. 그녀가 제작한 이러한 작은 색종이는 당시 문인들 사이에 높은 평판을 받으면서 ‘설도전’ 또는 ‘완화전浣花箋’이라 하여 크게 유행하였다.



망강루는 청두 시내를 관통하는 금강錦江 기슭에 세워져 강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름 붙여진 누각이다. 주변은 음시루吟詩樓, 탁금루濯錦樓와 함께 건축군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였던 여류시인 설도를 기념하여 조성된 것이다. 청대에 건축물들이 훼손되자 광서제光緒帝 때 여러 건축물들과 더불어 당시 종이 제작에 사용되었던 설도정을 보수하면서 설도가 좋아했던 푸른 대나무를 심어 청두를 대표하는 도시 이미지로 재탄생되었다.

중국의 대표적 인문학자 이중톈易中天은 그의 『독성기讀城記』에서 청두를 중국에서 ‘가장 여유로운 도시’로 서술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청두의 여유로운 삶은 애써 분주하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혜의 땅’이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청두의 도시문화는 강남지역의 쑤조우蘇州처럼 사대부나 은퇴한 관료들이 만들어낸 특정한 계층의 도시문화와는 구별되는, 조그만 논밭을 경작하거나 소자본으로 장사를 하는 이들과 더불어 문인文人과 재사才士들이 만들어낸 도시문화라 하였다. “쑤조우에는 원림園林이 많고 청두에는 다관茶館이 많다.”라는 말은 이러한 문화적 기반의 차이에 기인한 도시의 특색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돈 몇 푼만 있으면 느긋하게 찻집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청두이기도 하니 청두의 찻집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룬다.

청두와 같은 지역성이 두드러지는 역사도시들을 살펴보면 중국인들은 역시 국가보다는 도시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중국의 다양한 역사문화도시들을 개별적, 혹은 유형별로 살펴 보는 것은 중국에 대한 역사인문학적 이해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대영 동양대학교 교수

커다란 집을 가지고 있는 탑

탑은 부처가 머무는 집이다 보니 보통 절집 마당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길 끝에 경천사지 십층석탑이 있다. 경천사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아름다움과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줘야 할 석탑은 그 자리를 잃고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서 있다.

이 자리는 구석기 시대부터 남북국 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행하고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만나게 된다. 어렸을 때 경복궁 잔디밭에서 봤던 바로 그 탑이다. 생생한 기억 속의 경천사지 십층석탑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다.

개성의 경천사에 있어야 할 탑이 어떻게 경복궁 안뜰에서 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분단의 아픔이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문화재인 탑에도 묻어 있구나.

이 경천사지 십층석탑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일본의 야비한 문화재 약탈 과정이 숨어 있었다. 일본이 침략의 야욕을 숨기고 이권을 쟁기기 위해 우리나라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하던 시기에 조선의 문화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선의 문화재를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경천사지 십층석탑은 일본의 궁내부 대신 다나카의 눈에 띄게 되었다. 조선을 방문해 경천사지 십층석탑을 직접 본 다나카는 높이 13.5m의 거대한 석탑의 층마다 표현된 지붕 모양과 기왓골, 몸체에 새겨진 부처, 보살, 화초, 용 등의 섬세한 조각에 반했다. 다나카는 이 석탑을 손에 넣고 싶은 욕심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고종 황제가 자신에게 탑을 하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에 속은 마을 사람들은 석탑이 무참히 해체되어 일본으로 반출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후 거짓말이 탄로나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자, 탑을 돌려보내지 않고 버티던 다나카는 결국 굴복하게 되었다. 한 일본인의 야욕 때문에 바다를 건너갔던 경천사지 십층석탑은 다행히 고국으로 돌아왔다. 반출된 지 10여 년 만의 일이었다.

돌아온 탑의 모습은 처참했다. 해체하는 과정, 일본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심한 상처를 입어 제 모습을 찾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 해체된 탑은 고국에 돌아온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경복궁 근정전 한쪽에 돌덩어리처럼 방치되었다. 그사이 한국 전쟁을 겪고 나라가 둘로 나뉘면서 경천사지 십층석탑은 돌무더기 상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10년간의 복원 과정을 거쳐 1960년이 되어서야 모습을 갖추어 경복궁에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경복궁도 원래 자리로 갈 수 없었던 경천사지 십층석탑의 보금자리는 아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천사지 십층석탑도 함께 왔다. 석탑 중 유일하게 실내에 위치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커다란 집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는 ‘경복궁 잔디밭보다는 여기가 훨씬 괜찮은 장소지.’ 하는 위안보다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과 원래의 자리로 보내주지 못한 안쓰러운 마음을 담아 이 탑을 만나게 될 것 같다. “경천사 옛 절의 옥탑을 찾으며 청산이 말이 없도다.”는 1910년 대한매일신보 기사.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안타까움은 여전하다. 🐼

이명숙 회원



경천사지 십층석탑, 국립중앙박물관

태를 묻고, 胎 평안을 빌다

겨우내 민낫 그대로이던 언 땅에 군데군데 초록이 보이기 시작한다. 맨몸으로 찬바람을 맞던 나뭇가지에도 파르스름한 기운이 돈다. 곳곳에서 새 생명이 움트고 있다. 첨단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생명의 탄생은 여전히 신비롭고 경이롭다. 특히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며 처음으로 모습을 보일 때의 벽찬 감동은 기쁨을 넘어 경외감마저 갖게 한다. 세상 밖으로 나온 태아는 탯줄을 자르는 순간 독립된 생명체가 된다. 태는 비로소 그 소임을 다한다. 비록 소임은 마쳤지만 태는 귀한 대접을 받는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태아를 키워낸 태는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 예사롭이 다루지 않고 출산 후 소중하게 갈무리한다.

우리 선조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의 어질고 어리석음, 성하고 쇠함이 모두 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어 정성을 다해 간수했다. 민간에서는 태를 태워 작은 항아리에 넣어 묻거나 깨끗한 물에 흘려보냈다. 하지만 왕실에서는 신생아의 태가 국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여 태를 태우지 않고 전국의 명당에 태실胎室을 만들어 보관했다. 태를 매우 귀하게 여겨 태를 다루는 모든 절차는 엄격한 예를 갖춰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되었다.

왕자나 공주가 태어난 지 3일이나 7일째 되는 날에 세태의식을 거행했다. 태를 씻는 의식이다. 길한 방향에서 물을 길어 와 태를 백 번 씻고 마지막으로 향기로운 술인 향온주로 씻어 동전과 함께 작은 백자 항아리에 넣었다. 기름종이와 남색 비단으로 항아리를 봉하고 붉은 끈으로 단단히 묶어 이를 다시 큰 항아리에 담고, 항아리 사이의 빈 공간은 파손되지 않도록 솜으로 채웠다. 붉은 끈으로 또다시 큰 항아리를 묶고 태 주인, 출생일, 태를 묻는 날짜가 적힌 붉은 패를 매달아 길한 방향에 안치해 두었다가 태봉胎峰이 선정되면 옮겨 묻었다. 이때 석함을 만들어 그 안에 태를 담은 항아리와 생년월일과 태를 묻는 날짜를 새긴 지석誌石도 함께 묻었다.

태실은 풍수지리에 의거한 전국의 명산에 자리를 잡았다. 왕실의 태를 묻은 태봉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흩어져 있는 까닭은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라면 어디나 태실을 지었기 때문이다. 태실은 주변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없고



순조태봉도, 장서각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은 산봉우리에 조성되었다. 태실의 주인이 왕위에 오르면 태실은 태봉胎封으로 격상되어 외형이 화려해진다. 국왕의 태실은 품위와 위엄을 갖추어야 했기에 고급스러운 석물로 단장했다. 부도처럼 생긴 둥근 돌에 구름무늬를 새겨 지붕돌을 얹고 그 주위에 팔각 난간을 둘러 보다 웅장하게 태실을 다시 조성했다. 이를 가봉加封이라 하는데 '더하여 모신다.'는 뜻이다. 가봉을 마친 후에는 그 과정을 기록한 의궤를 제작하고 태봉도胎封圖를 그려 왕에게 보고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태봉도는 4점인데 그중 <순조태봉도>는



순조 태실

순조의 태를 묻은 태실에 1806년 석물을 가봉하고 그 주변의 산세와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렸다. 아래쪽에는 태실을 관리하던 수호 사찰인 법주사의 모습이 보이고 그 뒤로 우뚝 솟은 봉우리에 석물로 단장한 태실이 눈에 띈다. 태봉의 정상에 들어앉은 태실과 태실비를 마치 사진처럼 상세하게 그렸다. 현장에 내려갈 수 없었던 왕은 태봉도를 통해 완공된 태실을 확인했다. 현재 순조의 태실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에 있다. 태항아리는 서삼릉으로 옮겨지고 없지만 태실과 태실비는 원형대로 복원되어 거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태실 중 성주 선석산 아래 태봉에 자리한 세종대왕자 태실은 그 규모가 크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세종 20년(1438)에서 24년(1442)에 조성되었다. 장자 문종을 제외한 모든 왕자의 태실과 단종이 원손으로 있을 때 조성한 태실 등 19기의 태실이 한곳에 모여 있다. 전체 19기 중 14기는 조성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양대군의 즉위에 반대한 다섯 왕자의 태실은 기단석을 제외한 석물이 파괴되어 남아 있지 않다.



백자 태항아리와 태지석, 국립중앙박물관



세종대왕자 태실



서삼릉 태실

이 태실은 여러 기의 태실이 한곳에 모여 있는 유일한 곳으로 조선 시대 태실의 초기 양식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와 함께 변화한 태실 조성 양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왕위에 오르기도 따로 가봉을 하지 않은 세조의 태실 앞에는 귀부와 이수를 갖춘 가봉비가 하나 더 세워져 두 개의 비가 서 있다. 그 반대편 끝에는 세조가 사약을 내린 조카 단종의 태실이 있다.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죽이고 죽임을 당한 두 운명의 첫 시작은 평안을 기원하며 함께 했지만 끝은 그렇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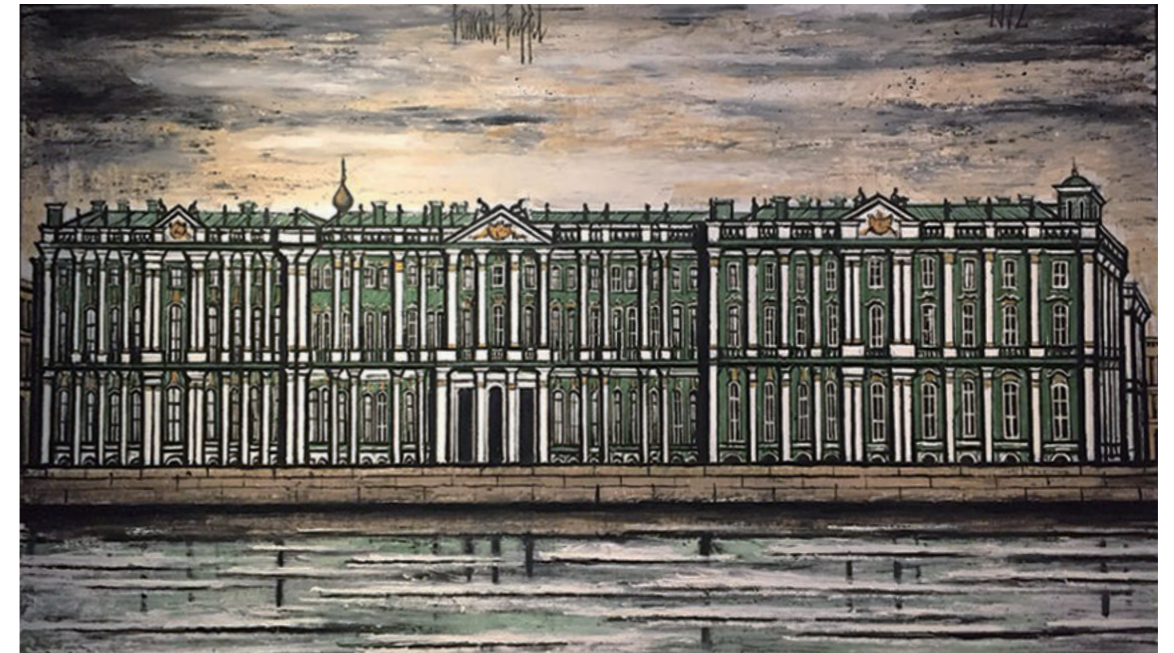
전국의 명당을 골라 왕실의 번영을 축원했던 태실은 조선 왕조가 기울면서 기구한 운명을 맞는다. 1929년을 전후해 조선총독부가 제자리에 잘 있던 태실 54기를 강제로 서삼릉으로 옮긴 것이다. 겉으로는 전국에 흩어진 태실을 한 곳으로 모아 통합 관리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왕실의 정기를 끊으려는 의도였다. 옮겨 묻는 과정에서 태를 보관했던 백자 항아리가 도난 당하거나 가짜로 바꿔치기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국운이 달려 있다는 믿음에 정성을 다했을 석공의 혼은 온데간데없고

뜰에서 찍어낸 것처럼 하나같이 똑같다. 연꽃과 구름무늬로 몸돌과 지붕돌을 장식하고 연엽주석으로 난간을 둘러뒀던 조선 왕실의 전통 방식은 깡그리 무시하고 무성의하게 일률적으로 검은색의 비석을 세워 놓았다. 왕실의 권위와 위엄은 초라한 모습으로 나라 잃은 치욕을 생생하게 후세에 전한다. 마주하고 있자니 서글픈 역사가 아물지 못한 생채기가 되어 따끔거린다.

조선 왕실에서 본보기를 보였던 태를 소중하게 다루는 문화는 민간에까지 널리 퍼져 우리의 고유한 문화로 정착하며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시대가 변한 만큼 태를 보관하는 방법은 많이 달라졌지만 생명을 키워낸 태를 소중하게 여기는 습속은 여전하다. 요즘은 도장이나 앨범을 만들어 태를 보관한다. 최근에는 신생아를 꼭 빼담은 태 보관용 인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신세대의 발상이 참신하다.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 존중의 문화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이 새삼스럽다. 하지만 자손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원초적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인지상정이 아닐까. 🐼

계윤애 회원

인물로 읽는 러시아 역사 - 예르미타시박물관전



베르나르 뷔페, 겨울궁전

여행이 역사를 바꾸는가?

여기 그것을 증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17세기 말 서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온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에서 되찾은 네바강 하구에 자기 이름을 딴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러시아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목재건축의 전통과 결별하고 서유럽식 석조건물들을 빼곡히 채워 넣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가 꿈꾸던 부동항이요, 불에도 타지 않는 요새일 뿐 아니라, 잠자던 거인 러시아가 깨어나 유럽을 향해 열어젖힌 창이었다.

러시아 황실과 귀족사회가 특히 흠모하고 닦으려 노력한 나라는 당시 가장 발달된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였다. 자유주의와 계몽주의 사상과 더불어 세련된 궁정문화가 파리에서 유입되었다.

그 역동적인 교류의 배경이 된 겨울궁전이 기획전시관 입구에 서 있다. 순백의 기둥과 황금색 주두柱頭 사이마다 경쾌한 연녹의 벽면이 계절을 무색하게 만든다.

들어오는 모든 방문자에게 친히 인사를 받는 예카테리나 2세는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작품이 프랑스 화가의 작품이 되 소속은 분명히 러시아임을 단단히 일러준다. 열성적인 예술품 수집가였던 그녀는 1762년 즉위하던 해에 막 완공된 겨울궁전으로 거처를 옮긴 후, 주변에 부속건물들을 차례로 건설하며 그 안을 자신의 방대한 소장품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혁명과 낭만주의시대의 노란 방에 들어가면 전시를 대표하는 두 얼굴을 만날 수 있다. 첫째는 니콜라이 구리에프 백작이다. 재무장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가문도 시대도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앙그르, 니콜라이 구리에프 백작의 초상

잘 타고난 복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가 스무 살이던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고, 그는 이 '조국전쟁'에 이어 프랑스 원정에 참여했다. 이기는 전쟁을 치른 그는 스물넷에 이미 육군대장으로 승진하고, 황제의 전속부관을 거쳐 외교관으로 변신했다.

다시 그의 초상화로 돌아오면, 1821년에 그는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다른 부유한 여행자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와 피렌체에서 그림을 주문했다. 이 운 좋은 남자의 초상화를 그려주게 된 화가는 1806년부터 1824년까지 로마와 피렌체에 거주하며 본의 아니게 생계형 초상화가로 활동한 앙그르였다. 딱딱하게 포즈를 취한 젊은 관료를 잘 들여다보면 나폴레옹을 연상시키는 머리스타일이 흥미롭다. 구레나룻을 저렇게 공들여 세우고, 왼쪽 귀에 보일 듯 말 듯 금귀고리까지 한 것을 보면, 이 청년은 인상보다 분방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능력을 인정 받은 후에는 기민하게 군대를 떠나 외교관의 삶을 선택한 것이 이해될 듯하다.

두 번째 인물은 안나 오볼렌스카야 공작부인이다. 구리에프 백작이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얼굴이 되 미남은 아니라면, 이 젊은 귀부인은 단아한 이목구비가 미인의 전형이다. 검붉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선 여인은 편안하게 아래로 내린 두 손에 흰 장미를 들고 있고 결혼 반지가 보일 뿐이다. 그 흔한 목걸이나 코사지 머리장식도 없고 드레스에는 무늬도 물결치는 레이스도 없다. 보드라운 벨벳의 양감도 최소한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식의 부재가 초상화의 주인을 신비롭게 만든다.

그림을 그린 에밀 오귀스트 카롤뤼스뒤랑은 30대 초반부터 거의 전적으로 초상화에 몰두했다. 이 그림을 그리기 11년 전 그는 안나의 어머니인 나제즈다 폴롭초바의 초상화도 그렸다. 잘 보면 모녀의 얼굴이 많이 닮았다.



에밀 오귀스트 카롤뤼스뒤랑, 안나 오볼렌스카야의 초상



에밀 오귀스트 카롤뤼스뒤랑, 나제즈다 미하일로브나 폴롭초바의 초상

흥미로운 것은 1960년대에 안나의 아들이 예르미타시에 와서 초상화의 주인을 정정해주기 전까지 안나의 초상화는 나제즈다의 이름을 달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떻게 그런 착오가 발생했을까? 그림과 주인이 갑자기 황망하게 헤어진 것은 아닐까? 오볼렌스키 공작과 안나 부부의 사망 연도가 똑같이 1917년인 걸 보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던 그 해에 두 사람이 함께 처형되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가슴이 철렁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아들은 혁명군을 피해 유럽 곳곳으로 흩어진 러시아 귀족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제정러시아의 종말과 함께 생을 마감한 안나 오볼렌스카야 공작부인. 자신을 몰아냈던 조국에 돌아와서 죽은 어머니의 초상을 마주한 초로의 아들에게까지 상상이 미치면, 그림 속 여인의 편안하고 무표정한 얼굴이 갑자기 더없이 슬퍼 보인다. 물론 스물 여섯의 안나는 자기 가족의 운명을 알 길이 없었겠지만 말이다.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격변 속에서도 황실과 귀족들의 미술품들은 안전하게 지켜졌다. 국유화와 재배치를 통해 일사천리로 정리된 진귀한 컬렉션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우랄산맥으로 피난을 다녀왔다. 박물관 연표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한 알렉산드르 1세가 러시아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 파리에 입성한 후 조제핀 황후의 컬렉션 회화 38점을 구입했음을 알려준다. 가히 놀라운 예술품 사랑이고 수집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아닐 수 없다.

전시실을 나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다시 겨울궁전이 기다린다. 이번엔 베르나르 뷔페의 그레피즘 회화이다. 강렬하다. 꼭 한번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은 사명감을 챙겨서 문을 나선다. 🍷

황문영 회원

남도의 타임캡슐

국립광주박물관

올해 개관 40주년을 맞는 국립광주박물관은 광주·전남지역의 역사유물을 관리하기 위해 1978년 12월 6일에 서울, 경주, 부여, 공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문을 연 국립박물관이다. 앞서 건립된 박물관들은 지명만으로도 대체로 어떠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광주라는 지명만으로는 그 정체성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광주로 떠나본다.

남도의 유산

대다수의 역사 박물관처럼 이곳에서의 관람도 1층 선사·고대 문화실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한다. 온화한 날씨, 풍부한 물과 갯벌, 완만한 지형. 한반도에서 수렵채집민이 살아가기에 이 지역만큼 좋은 곳도 흔치 않았을 것이다. 전라남도 전역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유물들이 이를 반증해준다. 또한 세계적인 고인돌 집중지역인 한반도에서도 대다수가 전라남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들 중 일부를 박물관 야외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데, 순천 주암댐 건설 당시 수몰지역에 있던 것들을 옮겨놓은 것이다. 대부분 이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덮개식 고인돌이다.

역사시대로 접어든 시기의 유물들을 살펴보면 결국 백제에 흡수되었으나 이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마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해 내려오는 기록이 매우 적고 단편적이어서 고고학적인 성과로만 알아낼 수 있는 미지의 소국들이다. 그나마 이 박물관은 그들의 흔적을 가장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2층의 중·근세 문화실로 올라가면 각지의 석탑과 절터에서 나온 불교유물들 외에도 진도 운림산방에 기거했던 소치 허련의 작품을 비

롯한 남도의 회화, 그리고 고려시대 최고급 청자를 생산했던 강진의 도자기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국립광주박물관이 세워지는 계기를 마련해준 유명한 유물들이 있으니 바로 1975년에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해저유물들이다.

사연 많은 지정문화재

2002년 11월 순천 매곡동. 자신의 밭에 있는 심하게 파손된 5층석탑을 음식점을 하는 문모씨에게 팔기로 한 최모씨는 석탑을 옮기던 중 발견한 청동 불감과 내용물을 임의로 팔아버렸다. 고미술상을 전전하며 불법 유통되던 이 유물은 2003년에 문화재청 단속반에게 발견되어 2004년에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2015년에 보물 1874호로 지정되어 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선보였던 순천 매곡동 청동불감과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다.

국보 143호로 지정된 화순 대곡리 유적 출토 청동기들이 들어온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개인 주택 배수로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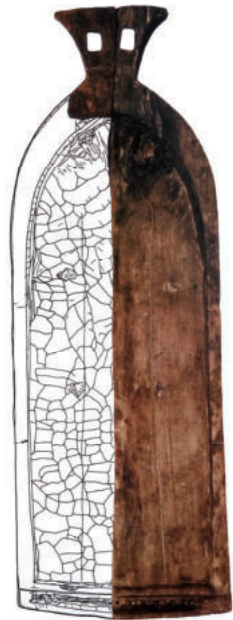
공사 중에 발견한 쇠붙이들을 산 옛장수가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전남도청에 신고했다. 얼마 후 조사에 들어갔

지만 이미 유구는 파괴되었고, 주변 여건상 새로운 발견 없이 덮어야 했다. 그러다가 2008년에 폐가가 된 현장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통나무 관과 그 밑에 묻혀 있던 한국식 동검 두 점이 추가 발견되어 37년 만에 모든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국보 103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도 먼 길을 돌아왔다. 원래 절터에 삼층석탑과 함께 있었던 이 석등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반출될 뻔했으나, 다행히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면사무소에 보관되었다가 전남도지사 관저, 경북궁 자경전, 경무대를 거쳐 당시 덕수궁에 있던 국립중앙박물관에 안착하는 듯했다. 그러나 박물관이 경북궁으로, 중앙청으로 이전할 때마다 함께 옮겨 다녀야 했고 1990년이 돼서야 광주에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깨진 곳 없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순천 매곡동 불감과 아미타여래삼존불



현악기

마한의 타임캡슐

반면 정식 발굴되어 국립광주박물관의 자량이 된 것들도 있다. 1960년 어느 향토사학자가 광주 신창동 도로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을 국립박물관에 알린 일이 계기가 되어 기원전 1세기경 마한의 어린아이들이 묻힌 독무덤을 무려 53기나 발굴했다. 32년 후인 1992년에 다시 이 장소를 찾았을 때는 국도1호

선 직선화 공사 중이었다. 유물이 더 나올 것이 분명한 지역이라 판단하여 채취해 온 모래와 흙에서 뽕씨와 토기편이 나왔다. 다행히도 현장이 훼손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도로확장 범위인 9평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그 좁은 면적에서 각종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목제 유물들이 2000년 넘게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저습지에 묻혀 있었던 덕이었다. 하지만 발굴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저습지 유적 발굴이 처음이라 선불리 발굴하다가는 유물을 망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발굴을 멈추고 2년간 일본에서 저습지 유적발굴 기법을 배워온 후 199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그 일대 유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발굴의 결과물을 1층 농경문화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동 유적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유물들 중 국내 최초



칸막이 고배



천조각

머리빗

라던가 국내 최고最古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들이 많다. 가장 오래된 비단조각과 베틀부속, 발화도구, 현악기 슬랫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발갈. 여기서 나온 수레바퀴 부속은 “마한인은…… 소나 말을 탈 줄 모른다.”고 한 후한서의 기록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당시로서는 선진 기술인 칠기를 제작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벼 생산량을 알려주는 무려 155cm나 되는 벼껍질 압착층의 존재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벼의 무게로 환산하면 500여 톤에 달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각종 작물의 종자와 하다못해 기생충 알까지 나왔다고 하니 “마한의 타임캡슐”이라는 별명이 딱 들어맞는다.

국립광주박물관을 처음 존재하게 한 것은 신안 해저유물들이었다. 하지만 이후 40년 동안 다양한 유물들이 축적되며 더욱 다채로운 곳으로 변모하였다. 그중에서도 잊혀진 나라 마한이 궁금하다면 이곳보다 더 매력적인 곳은 없을 것이다. 광주에는 국립광주박물관이 있다. 🐼

서유미 회원



발화구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친구들(YFM), 고려시대 불감을 기증하다



고려시대 불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지난 2014년 고려시대 나전경함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이후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친구들(YFM)과 함께 국외에 있는 우리의 유물을 찾아 박물관에 기증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에 YFM의 이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고려시대 불감을 기증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고려시대 불감 기증식’에서 신성수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이 유물기증 소감에 대해 말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친구들(YFM)은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젊은 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후원모임이다. YFM은 이번 불감의 구입을 위해 후원금을 모아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는 2018년에 기증하였다. 우리회의 문화재 기증은 10번째로 지금까지 고려시대 나전경함, 간다라 불상, 미투나상, 비슈누상 등을 기증하였다.

불감은 '휴대용 불전'으로 사찰 이외의 장소에서 예불을 돕는 기능을 하고 탑 내부에 봉안되기도 했다. 이러한 소형 금속제 불감은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불감은 작은 규모의 건축공간이기 때문에 불상 봉안의 기능 외에도 건축적인 의장, 공예기법 등 당시 불교미술의 전분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중요한 문화재이며 그 가치가 높다.

이번에 기증한 불감은 지붕이 없는 상자형 불감으로 고려시대 14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형의 기단 위에 동판을 이어 벽체를 만들고 정면에는 여담이문을 달아 개폐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문에는 금강역사상이 조각되어 있고 내부에는 여래설법도가 새겨져 있다. 여래설법도는 중앙의 석가여래와 좌우의 협시보살, 10대 제자와 팔부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이 기증한 관음보살상은 재질이 은이고, 금으로 도금하여 제작되었으며 이 시기에 제작된 원·명대 불상 양식의 소형 금동상과 상통하는 요소가 많다.

이 불감은 2018년 12월에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대고려전>에 전시될 예정이다. 🐼



백자 청화 철채 포도무늬 화분받침대, 국립중앙박물관 백자실

주렁주렁

청렴 한 알,
겸손 한 알,
다산 한 알,
화목 한 알.

제후의 자리보다
더 탐나는
포도 한 송이. 🐼
정향숙 회원

* 원숭이는 獼(원숭이)와 侯(제후)가 발음이 같아 관직을 상징하고, 포도는 풍요, 다산, 청렴, 화목을 상징한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金正泰 회장을 거쳐 2017년 11월 申聖秀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申聖秀
 副 會 長 | 尹在倫 朴殷寬
 理 事 | 郭東錫 金錫洙 金信韓 南秀淨 朴禎原
 禹燦奎 尹碩敏 李玉卿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裴基同
 監 事 | 金教台 李教祥
 事 務 局 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주작회원
 尹光子 회원

현무회원
 金正泰 하나금융그룹

천마회원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孫昌根 소장가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申憲澈 SK에너지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尹章燮 전 정보문화재단 이사장
 鄭溶鎭 신세계그룹 부회장
 千信一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許榕秀 GS EPS 대표이사
 洪錫肇 (주)BGF리테일 회장

금관회원
 姜德壽 (주)STX
 庚 園 광제사 주지
 權俊一, 具在善 Actium Group 부회장
 曉 暎 회원
 金南延 (주)동훈 대표이사
 金錫洙 동서식품(주) 회장
 金承謙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金信韓 대성 사장
 金芝延 (주)컨셉 대표
 全裁範 금강공업(주) 사장
 南秀淨 (주)썬앳푸드 사장
 都炯泰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朴炳燁 팬택&큐리텔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朴禎原 두산 네오플렉스 부회장
 宋英淑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尹在倫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李圭植 경신금융(주) 대표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李垞炘 MashupAngels 대표
 鄭明勳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鄭在鳳 (주)한섬
 趙顯相 효성 사장/전략본부장
 許允秀 (주)ALTO · (주)ALTEK 부사장
 許允烘 GS건설 전무
 洪政旭 헤럴드 · 올가니카 회장

은관회원
 姜院基 오리온 대표
 金教台 삼정회계법인 대표
 金寧明 (주)예을 이사장
 金英姬 회원

金載勳 영풍계약 부사장
 金鍾漢 (주)종합전기 대표
 柳芳熙 (주)풍산주택 회장
 柳智勳 (주)한담 사장
 朴英柱 (주)다이소아성산업 부사장
 朴知原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裴東眩 창성그룹 대표이사 사장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成來恩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成弼鎬 광성기업(주) 대표
 宋秉峻 (주)게임빌 · (주)컴투스 대표이사
 宋 哲 성민출판사 대표
 梁洪碩 대신증권(주) 사장
 禹燦奎 학교재 대표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尹賢慶 동화약품 상무
 李教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李玉卿 서울옥션 부회장
 李周成 세아제강 부사장
 林鍾勳 한미IT(주) 대표이사
 張仁宇 선인자동차 · 고진모터스 대표이사
 崔杜準 (주)동남유화 부회장
 崔正勳 대보건설(주) 부사장
 崔철원 M&M(주) 사장
 韓惠舟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청자회원

姜承模 KP그룹 부회장
 高基瑛 (주)금비 부회장
 具東輝 (주)LS 상무
 具本權 LS-Nikko동계련(주) 부장
 具本商 LIG넥스원(주) 부회장
 具本赫 LS-Nikko동계련(주) 부사장
 具瑗姬 한성플랜지 이사
 鞠賢永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權宅煥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金建昊 삼양사 팀장
 金京姬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金寧慈 (주)예을 명예이사장
 金大煥 (주)슈퍼리어·슈퍼리어홀딩스(주) 사장
 金東官 한화 큐셀 전무
 金東準 다우데이터 전무
 金斗植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金相潤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性完 스무디킹 Global CEO
 金世淵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永珉 김&장 법률사무소
 金榮秀 2014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金裕錫 (주)행남 대표이사
 金倫壽 지리산 문학관 관장
 金恩惠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金益煥 한세실업(주) 대표
 金仁順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金載烈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金正宙 (주)NXC 대표이사
 金宗學 서양화가
 金兌炫 성신양회(주) 사장
 金澤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金賢鎰 히든베이호텔 사장
 南兌勳 국제약품 대표이사 사장
 柳重熙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柳重熙 라인테너셔널법률사무소파트너변호사
 李宇成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李雲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李胤基 대선제분(주) 부사장
 李仁洙 영은미술관 관장
 李宰旭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李廷龍 V&S자산운용 부장
 李柱翰 성곡미술관 이사
 李濬宇 (주)신원 부회장
 李芝衡 李哲雨

朴正遠 재미교포
 朴俊泳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朴海春 TV조선 상무
 方正梧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裴允植 회원
 徐東姪 대한광통신 사장
 薛允碩 (주)경동홀딩스 상무
 孫元洛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辛炳讚 아름지기 이사장
 申硯均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永茂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愼昌宰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沈宗玄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楊仁集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梁汰會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吳勝敏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吳治勳 인성산업(주) 전무
 柳東鉉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柳東鉉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俞承熹 BlueRun Ventures 대표
 柳英芝 호림박물관 이사
 尹 寬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尹普鉉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尹勝鉉 삼일회계법인 전무
 尹植善 (주)코오롱 상무
 李甲宰 열화당 대표
 李圭鎬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李圭鎬 N시엔 대표이사
 李圭鎬 삼표산업
 李圭鎬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圭鎬 목금토갤러리 관장
 李圭鎬 삼성모터스 상무
 李圭鎬 (주)에이티넵파트너스 대표이사
 李圭鎬 한국미술협회 회원
 (주)경농 부사장
 (주)이테크건설 부사장
 李宇成 OCI 사장
 李宇成 남양유업 전문위원
 李宇成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李宇成 수원대학교 이사장
 李宇成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李宇成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주)삼익유니버스 이사
 李宇成 흥아해운 전무
 李宇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李宇成 롯데쇼핑 총괄사장

李學俊 서울옥션 고문
 李海珍 NAVER 이사회 의장
 張同鎭 (주)파워맥스 사장
 張善霞 (주)교원 부문장/부장
 張升準 매일경제 사장
 洋賢財團 (주)한길봉사회 이사장
 田永采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田潤洙 블룸앤코 대표
 丁恩美 현대자동차 부회장
 鄭義宜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鄭在昊 현대유엔아이 전무
 鄭志伊 성암고서박물관장
 趙炳燾 경동소제 대표이사
 曹榮美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曹榮暎 (주)가온소사이터티 대표
 曹在顯 하나유비에스 대표
 趙希卿 천일식품(주) 대표
 陣在旭 (주)카카오 CFO
 千碩圭 (주)인팩 대표이사
 崔世勳 회원
 崔世勳 SK(주) 부회장
 崔世勳 회원 · 자원봉사
 韓榮宰 노루홀딩스 회장
 咸泳俊 (주)오투기 회장
 許正錫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許辰秀 SPC(주) 부사장
 玄明官 (주)화승R&A 부회장
 玄智皓 호성흥업 회장
 胡鍾一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胡昌成 남양유업(주) 부장
 洪範碩 고려제강 상무
 洪碩杓 고려상사(주) 부회장
 洪碩杓 회원
 洪正國 (주)BGF리테일 전무
 洪正道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
 洪進基 마리오아울렛 이사
 洪振碩 남양유업(주) 상무
 黃仁奎 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Joseph Bae KKR Asia Limited 대표
 Mark Tetto TCK Investments 상무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